

민석 장성만 목사의 기독교 세계관과 삶 -Abraham Kuype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선복 동서대 교수

Abstract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 논문은 동서학원 설립자 故장성만 목사(호:民石)의 기독교 사상과 삶을 칼빈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와 비교, 그 의미를 살펴보고 세계관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는데에 목적이 있다. 民石과 카이퍼는 첫째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 둘째 교육에 비전을 품은 대학 설립자, 그리고 셋째 국가 정책에 참여한 정치가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기독교신앙과 세계관을 기초로 교회를 운영하고, 대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정책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 경영리더들에게 도전의식과 성찰의 의미를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아브라함 카이퍼는 Herman Bavinck, Benjamin B. Warfield와 더불어 이미 칼빈주의를 계승한 세계 3대 개혁주의 신학자로 불리어지며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민석의 경우 뛰어난 설교가요 달변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이 무엇이었는지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못하다. 민석의 교육입국(教育立國) 지론은 다음과 같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는 기독교 정신 아래 머리로 배우는 지적교육, 가슴으로 느끼는 정적 교육, 손으로 일하는 의지적 교육을 실현하여 知·情·意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인격자를 양성하고자 한다”¹⁾ 그는 1965년에 ‘기독교 정신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경남정보대학을 설립하고, 또 1992년에 동서대학교, 2002년에 부산디지털대학교 3개 대학을 세워 10만명에 이르는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또 1961년 오사카 성서신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 미국 신시내티신학대학원 수료, 1975년 미국 미드웨스트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일본과 미국유학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미국이 철저한 기술자를 중심으로 한 산업 사회인것을 통감한 설립자는 한국이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기능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되어 미국 20개주(州) 50여개 교회를 돌면서 강연과 설교를 한 결과 많은 동지를 얻어 재미후원회(재

1) 동서대 웹사이트 설립자 소개

<https://www.dongseo.ac.kr/kr/index.php?pCode=corpfounder01>

미재단 이사회의 전신)를 조직하여 은사인 래쉬 선교사와 함께 1965년 2월 1일 동서학원을 설립하고 경남정보대학교의 전신인 영남기독실업학교를 개교하였다. 그리고 1992년에 동서대학교를 개교하며, '작은 大學 큰 改革' 을 21세기형 대학 모델의 기초로 삼아 세계화·특성화·정보화 라는 교육개혁 3대비전을 제시했다. 민석은 중학교 2학년때 아버지를 잃고 소년가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속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만나 할머니의 영향으로 향서장로교회에 출석을 하였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 1953년 에 대교그리스도의교회 Church of Christ)를 개척하고 평생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또한 그후 대학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적 실천에도 노력을 하였다. 2005년에 부산지역의 목사·장로들과 '크리스천 21세기 포럼'을 창립하였다. 특히 당시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들에게 피랍됐던 마부노호 어부 석방을 위한 모금운동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2007년 11월에는 사재 1억원을 출연해 미성년 가장(중고생) 100명에게 장학금 100만원씩을 전달하기도 했다. 2008년 동서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21세기 포럼 문화재단 설립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에 주력하였다. 민석은 2015년 12월, 목회자로, 교육자로서, 정치가로서 기도하며 땀과 눈물로 일구어 놓은 것들을 후세에게 남기며 주님의 품으로 떠났다. 이 논문은 민석의 기독교세계관 연구와 관련해, 국민일보 연재기사로 남긴 '역경의 열매'를 와 또한 그가 대학교회 강단에서 한 메시지 '성서가 말하는 행복과 성공의 비결 ①-⑦'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아울러 아브람 카이퍼에 대해서는 카이퍼가 남긴 '칼빈주의 강연'과 정성구의 '아브라함 카이퍼 사상과 삶' 등을 참조로 비교를 하고 있다.